

방광염의 원인과 증상

이 희 영

<서울대의대교수>

머릿말(序言)

방광염(膀胱炎)은 남녀의 전연령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의 한가지이며 방광(膀胱)에 생기는 병중에서 가장 중요한 병의 하나이다. 이 병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급성 혹은 만성으로 오고 빈뇨(頻尿), 배뇨통(排尿痛), 혈농뇨(血膿尿)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건강한 방광절막에서 처음부터 염증을 일으키는 원발성(原發性) 방광염은 적고 대개 방광이상부(膀胱以上部) 혹은 이하부(以下部)의 비노생식기질환에서 때로는 위장질환, 당뇨병, 신염(腎炎) 같은 전신질환(全身疾患)에서 2차적으로 발생한다.

한카디로 방광염이라고 해도 그 중에는 여러가지 형이 있으나 여기서는 주로 만성으로 오는 비특이성(非特異性) 방광염과 여성요도삼각부염(女性尿道三角部炎)의 원인과 증상에 관하

여 쓰기로 한다.

비특이성 방광염의 원인과 증상

각종 방광염중에서도 비특이성 방광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의 발생빈도는 필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비노기와 외래환자의 4.8%를 점(占)하고 있고 남자보다 여자에게 많아 남녀 비율은 1:1.9가 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본증(本症)은 생활이 왕성한 연령층에 많다. 즉 21~40세 사이가 그 $\frac{1}{2}$ 이상을 차지한다.

급성은 동연령층의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많이 오고, 만성은 61~70세 간의 여자보다 남자에서 그 발생빈도가 더 높다.

급성과 만성(慢性)의 비(比)는 1:3이 된다.

제결적으로는 여름에 많다. 결핵성 방광염 내 비결핵성 방광염의 비율은

대체로 1:2가 된다.

방광염은 그 원인에 따라서 세균성 방광염과 비세균성 방광염으로 병변 소견(病變所見)의 특징에 따라서 급성과 만성으로 분류하고 또는 부위별(部位別)로도 분류할 수 있다.

방광염의 원인

방광염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원인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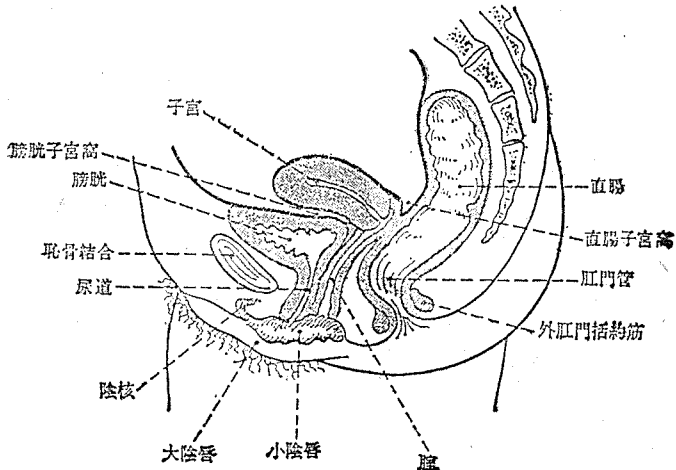
그러면 여기서는 본증(本症)의 원인요소를 먼저 생각해 본다.

세균성으로 오는 방광염의 원인균으로는 대장균이 75% 이상을 차지하며 그 외에 포도구균(葡萄球菌), 연

쇄구균(連鎖球菌), 호기간균(好氣桿菌), 변형균, 녹농균(綠膿菌)등도 이에 관여한다. 즉 방광염은 이들 균중에 의해서 단일감염 혹은 혼합감염증을 일으킨다.

비세균성 방광염은 화학물질로 인한 방광점막자극 또는 기계로 인한 방광점막자극에서도 올 수 있다.

방광염의 전염경로를 보면 혈류(血流) 혹은 임파류(淋巴流)를 통해서 오는 것은 드물고, 대개가 요도, 전립선(前立腺), 정낭(精囊), 자궁경관(子宮頸管) 등의 감염에서 상행성(上行性)으로 또는 신(腎)감염에서 하행성(下行性)으로 2차적으로 직접 전



<여성골반부의 단면도>

염된다.

여자에게 많은 방광염

급성방광염은 주로 대장균, 포도구균 혹은 임균(淋菌)의 상행성 감염에서 온다. 특히 남자보다 여자의 전연령층에서 요도가 짧고, 외활약근(外括約筋) 발육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요도방광염이나 요도삼각부염이 더 잘 생긴다.

만성방광염이라 함은 급성방광염에서 4주이상 지속할 때를 말하고, 주로 신감염(腎感染)이나 방광내에 어떤 병이 있을 때에 2차적으로 오며 남자에서는 만성전립선염, 정낭염을 그리고 여자에게는 경관염, 질염(腔炎), 요도협착(尿道狹窄) 등을 동반하는 수가 많다.

드물게는 요막관개방증(尿管開放症), 누공(瘻孔), 충수돌기, 직장, 난관 등의 염증에서 전과되는 수도 있다.

원발성방광염은 여자에서 가끔 보나 원래 방광점막은 세균감염에 대하여 저항력이 강하기 때문에 방광내에 세균이 침입하더라도 곧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유인(誘因)이 가해졌을 때에 염증을 나타내는 경향

이 많다. 남자에서는 요로성기(尿路性器)의 질환으로 오는 폐색(閉塞)에서 2차적으로 원발성방광염을 일으키는 수가 많다.

특히 부인과 방광염하고는 인연이 깊다. 결혼직후에 초발(初發)하는 비노생식기질환중에서는 비특이성 방광염이 제일 많고 여자방광염의 18%는 임부(妊婦)에서 본다.

여자는 해부학적으로 ① 외요도구(外尿道口)가 질전정부(脛前庭部)와 양소음순(兩小陰唇) 사이에 있고, ② 따라서 쉽게 노(尿), 자궁분비물, 대변 등에서 오염되기 쉽고, ③ 요도가 짧고, 넓고, 직선으로 되어 있고, ④ 따라서 요도역류현상(尿道逆流現象)이 나타날 수 있고, ⑤ 월경, 임신해산, 산욕(産褥) 등의 생리현상 때 문에도 본증(本症)이 잘 생긴다.

즉 임신후반기의 태아의 머리의 압박으로 방광요저류(膀胱尿貯溜)가 오고, 임신 10개월이 되던 임신자궁의 방광압박으로 임부의 70%에서 빈노(頻尿)가 오며 또 방광삼각부나 경부(頸部)에 충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임부에 방광염이 잘 생긴다.

성생활이 왕성할수록 많다.

성생활이 왕성한 연령의 부인에서 방광염을 자주 볼 수 있다. 이것은 부부생활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예로 신혼부인에서 과교(破瓜)가 지난 뒤 가벼운 배뇨통, 빈뇨, 혈뇨등의 방광자극증상이 오는바 이것을 특히 밀월여행성 방광염(honeymoon cystitis)이라고 한다.

그 원인으로는 여러가지 요인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타박상으로 요도에 손상을 주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부관계전에는 필히 남녀가 성기를 청결히 하고나서 뜻을 이루도록 함이 좋을 것이다.

방광염의 증상

그러면 여기서 방광염의 증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빈뇨(頻尿) : 염증에 의한 연속(攣縮) 방광삼각부나 경부 혹은 내활약근. 자극으로 심한 빈뇨가 주야의 구별이 나타난다. 이때 신경성 혹은 심리적성으로 오는 빈뇨는 수면(睡眠)으로 어진다. 또 심리적방광염(psychosomatic cystitis) 때는 빈뇨가 주간에만 기 때문에 주야의 구별없이 오는 일 방광염과는 쉽게 구별

이 된다.

2) 배뇨통(排尿痛) : 염증을 일으킨 방광벽의 수축으로 배뇨통이 격심하고, 염증이 방광삼각부나 경부에 있을 때는 더 심하며, 주로 배뇨종말통(排尿終末痛)이 심하다. 때로는 경축성(攣縮性)으로 급히 오줌을 누고 나면 뒤가 무겁고 방광에서 음부에 빠지는 통증 및 치골(恥骨) 상부암통을 호소한다.

3) 농뇨(膿尿) : 방광벽에서의 침출물로서 온통 오줌이 혼탁하고 이를 장기간 방치하면 침전물이 생긴다. 대체로 침전물이 산성뇨에서는 구름모양이고 알칼리성뇨에서는 두터운 모양(粘稠狀)을 나타내는 수가 많다.

4) 혈뇨(血尿) : 마지막에 혈뇨로 나타나는 수가 많다. 방광내의 궤양, 혈관의 파열로 혈뇨가 생기고 혈구가 혈관벽을 통과해서 혈관벽으로 나오는데서 혈뇨가 생기는 수가 있다. 그러나 혈뇨는 방광염의 필발증상(必發症狀)은 아니며 출혈성 방광염이외의 방광염에서는 혈뇨가 없는 때도 많다.

5) 이들 방광자극증상 외에도 회음부, 직장, 남자음경선단통증, 여자뇨도선단통증, 요통, 잔뇨감(殘尿感), 발열, 식욕부진, 오심, 구토 등의 전신

증상이 나타날 때도 있다.

여자 요도삼각부염의 원인과 증상

이것은 여자에서 많은 병으로 그 원인, 병리를 몰라서 신경성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본증은 여성의 방광경부와 요도를 자주 침범하고, 고질이라는 데서 「여성전립선염(女性前立腺炎)」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즉 그 증상이 여러면에서 난치병인 남자의 만성전립선염과 비슷한 점이 많고, 출산년령층부인에게 잘 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생긴 별명이다.

여자 요도삼각부염의 원인으로는 만성경관염, 애러지, 심한 정신적 불안, 긴장, 요도삼각부의 반사궁의 장애, 요도가 질, 자궁경관, 항문에 인접해 있다는 해부학적 관계 등을 그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본증은 신경이 예민한 신경질의 유식층 중년부인에게서 자주 보며, 근심, 걱정으로 정신적 피로가 심하고 또 육체적 피로도 겹치는 여인에게 잘 생기는 것이 한 특징이라 하겠다. 한 예를 들면 본증은 겨울 김장시기에 발생 악화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습다는 계절적 요인과 김장이라는 심리적 걱정 및 육체적 피로등 여러 요인

이 겹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 이 요도삼각부염은 재발 잘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구미의 성생활이 왕성한 연령층의 여인들은 본증을 접내여 그의 특효약인 「Donil」라고 하는 정제를 「핸드·백」속에 「악세싸리」처럼 넣어 갖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젊은 여성을 괴롭히는 병이기도 하다. 그 증세가 심한 사람은 「죽어버리고 싶다」할 정도로 이 병이 환자를 괴롭힌다.

이 고질병에 걸리면 요로증상으로 빈뇨, 요의촉박(尿意促迫), 배뇨곤란, 배뇨작열감, 배뇨종말통(排尿終末痛), 야뇨증, 배뇨천연, 요선세포소, 요점적(尿點滴), 요저류(尿貯溜) 잔뇨(殘尿), 무균뇨 등이 온다.

요로의 증상으로는 치골상부동통, 요통, 측복통, 냉감증, 신경과민, 미열, 식욕감퇴, 구토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장시일을 두고, 빈뇨와 배뇨곤란, 뇨의촉박 등의 요도증상이 반복하는 부인은 우선 요도삼각부염을 의심하는 것이 좋다.

본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게서 요점사를 해보면 이상을 발견할 수 없는 무균뇨인 때가 많고, 방광경검사에도 요도삼각부에 충혈이 있을 뿐이다.